



글 | 한화협사무국

## 화장실문화품질인증위원회 발족식 열려-

지난 1월 23일(목)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는 화장실문화품질인증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전영상(동양공업대학 교수)님을 부위원장에 조의현(산본연구소)님을 위촉하고 박창순(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님, 백홍식(하나건축사사무소 소장)님과 협의회 사무국장을 인증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발족식에서 심재덕회장은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이 국민의 호응을 받아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결과적으로 관련업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첨단기술들이 화장실분야에 접목되는 효과를 보게되었다”며 “화장실관련기업들이 화장실문화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힘든 일을 맡아준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전영상위원장은 “인증제에 대해 지난해 초부터 논의해 왔는데 이제 시작의 첫 발을 내딛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 이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이 제도가 국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인사를 하고 특히 이 제도는 국내 화장실 산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며 목적이 화장실 관련기업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여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을 접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의현 부위원장은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해나가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항들은 위원들간의 회의를 통해 인식을 함께 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나가면서 해야겠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업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긴밀한 관계유지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창순위원은 “화장실관련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의 내구성이나 안전성, 전기적 장치 등 세밀하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화장실문제

의 중요성을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열의를 다졌다.  
 백홍식위원은 “수원에서 처음 화장실개선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참여한 만큼 화장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인증제가 기존의 Q마크나 ISO인증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강석남위원은 “화장실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업체와 지자체 등 관련분야의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힘이 닿지 못하여 일 추진이 늦었다”며 이제 인증위원회가 구성된만큼 사무국에서 준비한 사항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명실상부하게 화장실관련업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인증위원회 제1차 회의

위원들의 간단한 소개와 인사에 이어 전영상위원장의 사회로 제1차 인증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전위원장은 인증위원회가 인증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위원들간의 인식의 공유가 중요하므로 당분간은 잦은 회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고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였으며 실무진행을 위해 협의회 김연식연구실장을 간사로 하는데 모두 동의하고 간사의 진행과정 보고를 통해 인증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확정하고 화장실문화품질인증마크(TCQ마크), 인증서, 인증패의 도안 검토와 심사평가 기준에 대한 기초토의를 통해 인증 목적, 인증 범위, 인증 절차, 인증기간, 인증료 등의 몇 가지 쟁점을 도출하고 이 후 회의를 통해 계속 토의를 해나가기로 하고 폐회하였다.

### 인증위원회 제2차 회의

2월 6일 오전 10시30분 사무국에서 전영상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인증제의 목적 및 취지는 “화장실문화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제품에 대하여 협의회가 인증을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요처의 선별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 인증을 중심으로 기관 인증, 업소 인증 등을 하기로 하였다.

특히 기업 인증은 간(이동)화장실부문, 설계·시공·인테리어부문, 위생도기·타일부문, 수전금구·약세서리부문, 오수처리부문, 유지관리부문, 기타화장실관련용품부문 등 7가지로 세분하여 인증을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인증절차를 확정하였다. 또 기존 Q마크나 ISO제도 등과 TCQ와는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이며 TCQ는 화장실문화를 촉진시키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이라는 특수한 차별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특히 TCQ는 평가기준에서도 기업의 화장실문화발전 기여도 및 제품의 문화, 환경, 복지, 위생, 자원절약의 측면에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지 여부와 디자인 및 편리성을 중심에 두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관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화장실정책과 사업내용, 성과와 이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업소(공중)화장실 인증은 기존의 아름다운화장실 시상상의 기준 등을 참조하여 추천이나 발굴을 통하여 수시로 폭넓게 우수화장실인증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1차 2차 회의의 논의 결과를 인증에 관한 규약으로 확정하여 차후 논의하기로 하고 폐회하였다.

### 인증위원회 제3차 회의

2월 14일 오후 4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위원 모두 참석하여 화장실문화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하였다. 규정은 목적과 종류, 절차, 기간, 비용 및 인증료 등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양식 및 평가표를 별표 1-9로 분류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이 모든 인증에 관한 내용을 오는 21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기로 하고 폐회하였다.

- ▶ 인증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로는 한화협 사무국 ( 031-226-7001 담당자:연구실장 김연식 ) 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1 2 1. 심재택 한화협회장으로부터 인증위원회위원장으로 위촉받은 전영상 한화협이사 2. 인증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위원들

